

2024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모두, 함께, 나눔: 동아 큐레이션 발전소 II >

신과 함께

Along with
Traditional
Busan Footwear

2024. 10. 2. 수 — 10. 27. 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층 전시실

“ 靴鞋

화혜는

우리의 전통이자 예술 그 자체입니다.
전통 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양각색의 신발 속에 담긴
따뜻한 빛깔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 화혜장 안해표 -

전시안내

관람시간 : 화~일요일 09:30 ~ 17:00

휴관일 : 월요일, 법정공휴일

연계행사

토크 콘서트 및 재학생 현악 4중주 공연 : 2024. 10. 2.(수) 14:00

원데이 꽃신 클래스 : 2024. 10. 29.(화), 11. 4.(월) 14:00 ~ 16:00
(대상 : 동아대학교 재학생)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운영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후원  전통우리문화예

맞이하며

기획전시 <신(靴鞋)과 함께>는 우리 조상들이 신었던 전통 신과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화해장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화해장 안해표

안해표 장인은 조부인 안두영과 부친 안학봉으로부터 3대째 화해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전통 신을 만들어온 그는 부산 감천동에 '화해장 전수관'을 세워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지, 삼베, 모시, 인견 등을 손질해 밑창을 만들고, 무명과 비단을 염색한 후 풀을 사용해 옛 방식 그대로 장인의 예술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통신의 형태

석鳥



적석

조선 왕실 계층이 제례, 혼례와 같은 왕실 의례에 신던 신발

혜鞋



화문단 당혜

양반이 일상복에 갖추어 신는 신발로, 조선 후기 신분 제도가 완화되면서 중인 계층까지 널리 신었던 신발

화靴



흑화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왕과 관리가 주로 신었던 목이 긴 신발

나막신 木鞋



유혜 油鞋



비가 올 때 신는 신발을 '진신'이라 부르는데, 굽이 있고 나무로 만들어진 신발을 '나막신 木鞋'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들기름에 절인 가죽신을 '유혜 油鞋'라고 한다.